

# 남·북·미 세 정상 마침내 판문점 회동

### 판문점 JSA서 조우...트럼프, 군사분계선 넘어 올라가 김정은 만나 자유 의 집 앞 역사적 남북미 정상 만남...文 제외 트럼프·김정은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날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날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역사적인 3차 회동

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46분 판문점 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과 군정위

소회의실(T3) 건물 사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이 만나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한 차례 악수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10여m 올라가 판문각 앞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곳에서 한 차례 더 악수를 나누고 함께 남측으로 내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자유의 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광이다. 기대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온 김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국경 넘을 수 있었고 김 위원장과 우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며 "이같은 행동 자체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남다른 용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후 3시51분 문 대통령도 자유 의 집과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며 역사적인 3차 회동이 성사됐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양 옆에 섰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3시54분 세 정상은 우리 측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양자 회담이 열렸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날 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여성역량강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방카 트럼프

## 강경화 만난 이방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북한 여성들도 기여 클 것”

### 한·미 여성역량강화 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지난날 30일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도 북한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날 오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여성역량강화 회의에 참석한 이방카 보좌관은 "여성 역량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세계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한·미 여성역량강화 회의에는 이방카 보좌관과 강경화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윤승이 엔씨소프트 사장 등을 비롯해 한·미 주요 여성단체와 기업인 한 국국제협력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 올해 2월 이방카 보좌관 주도로 시작된 W-GDP 이니셔티브를 설명했다. W-GDP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전세계 개도국 여성 500만명의 경제 잠재력 실현을 목표로 양질의 교육과 훈련 제공, 여성 경제 참여를 제한하는 법·규제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방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여성기업가기금(We-Fi)의 공여국으로서 개도국 내 여성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열쇠로 여성의 역할과 교

육의 힘을 강조하고, 한·미간 협력의 외연이 안보, 경제 등을 넘어 여성역량 강화 부문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교육 분야 뿐 아니라 경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 평화, 개발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 연계된 개념"이라며 "이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보와도 관련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성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사내 육아지원 제도를 설명한 뒤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성 확보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을 타고 전날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이방카 보좌관은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은 여사 등과 함께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또 이날 한·미 여성역량강화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경제인 대화에 참석해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방카의 방한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3박4일 방문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강 장관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이방카 보좌관을 만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이방카 보좌관은 "꼭 다시 방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 장병완 “윤리특위 종료는 5·18만인 의원 면죄부 꿈수”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날 30일 "국회 윤리특위 종료는 5·18만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꿈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당장 7월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연장하고 마땅히 상설로 설치해야 될 윤리특위 권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월말로 종료되는 윤리특위의 권한 연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5·18 관련 망언 의원들의 징계 등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꿈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황교안 “고난에도 강해질 것...끝까지 文정권과 싸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질 것"이라며 "굴건하게 제 길을 가겠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정책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유우파의 리더십과 구심점이 없이 우왕좌왕했다는 지적도 사실인 부분이 많지만, 지금은 어쩔나"라며 "우리는 다시 메미른 토양을 개간하고 일궈 보수의 새

겉선거, 패스트트랙 저지 부쟁, 민생·투쟁 대장정,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폭로 등 당원들과 함께 했다"면서 "역량 있는 대안 정당으로 가고 있다. 2020 경제대 전환 프로젝트 추진으로 경제대안을 찾고 있고, 문재인 정권 안보 실정 폭로 그리고 안보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라며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청년, 여성과 당원,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차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 그 가치와 신념을 다시 성찰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한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 4·3 보

“국민 열정·통합 에너지 한국당 그릇에 담을 것”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파괴한 무능한 정권”

이스북에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라며 이같이 밝힌 뒤 "국민의 열정과 통합 에너지를 한국당의 그릇에 오롯이 담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때 우리 한국당에 자유우파의 철학과 가치가 실종되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진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외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